

전립선이란 방광의 밑부분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호도 크기만한 내분비선을 말한다. 이 전립선은 남자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전립선 비대증이란 질환은 바로 이 전립선이 커지는 질환을 말한다. 남성의 배뇨장애 질환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이 질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빈도가 증가하며 6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전립선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서는 편의상 그 경과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고 있다.

1)제1기

빈뇨 특히 야간빈뇨(자다가 2~4회 가량 배뇨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 배뇨시작의 지연, 방뇨력 감퇴 등을 보인다. 가끔 회음부의 불쾌감이나 중압감, 하복부의 긴장감을 느낄 때도 있으며 오랜 승

3. 전립선암과의 관계

전립선 비대증은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립선 비대증과 함께 전립선암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직장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다.

4. 치료

1)일반적인 주의사항 및 보존적 요법

절도있는 일상생활이 중요하다. 과한 음주나 성생활 등을 삼가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도록 한다. 따뜻한 물로 온욕을 하는 것은 말초순환 개선에 좋다. 장기간에 걸친 자동차 여행이나 변비 등은 전립선의 충혈, 부종 등을 초래하므로 피하도록 한다.

2)약물요법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약물은 아직까지 없지만 몇가지 약제가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

3)수술요법

보존적 요법과 내과적 요법으로 배뇨가 원활하지 않고 잔뇨량의 개선이 없고 또한 신기능의 개선이 없을 때에는 수술을 요하는데 여러 가지 수술 술식 중 어느 것을 택하는가는 적응과 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선택한다. **ST**

전립선 비대증

許 鳳 烈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는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이 질환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1. 원인

그동안 체질, 인종, 영양, 염증, 종양, 동맥경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거론되어 왔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에서는 남성호르몬과 많은 관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2. 임상증상

차, 음주, 성교 등으로 증상은 심하게 된다.

2)제2기

배뇨 후 얼마 안되어 다시 요의를 느끼게 되며 초기에 보였던 자극증상 및 배뇨증상이 심해지고 갑자기 소변을 보지 못해 환자가 당황하는 수도 있다.

3)제3기

잔뇨량이 증가하고 배뇨력이 더욱 약화되며 신장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